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 여러분이 1일차 이든 30년이 되었든 간에, 진실은 인생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될수 있다는 것은 확고합니다. 이 계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효과적으로 포용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David J. Swandt의 저서 “Out of This World: A Christian’s Guide to Growth and Purpose”로부터 발췌

Copyright © 2013 David J. Swandt. All Rights Reserved.

Published under license agreement by Twenty20 Faith, Inc. (USA). Not intended for resale.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twenty20faith.org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은 일련의 최고점와 최저점, 즐거움과 약속의 시기와 도전과 의심의 계절이 섞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종종 말합니다.

인생은 정상까지 꾸준히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언덕과 계곡으로 구성된 여행입니다. 모든 사람, 신도와 비신도 모두, 모두 인생의 기복을 겪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으며 이는 인생의 골짜기에서 혼자 남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신명기 31:6 (개역한글-KRV)

진리는 우리가 도전과 성공의 시간 모두에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삶의 각 도전을 절망에
대한 쇠퇴라기보다는 성공을 향한 발판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에 너무 높거나
낮은 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충실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먼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애쓰는 인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신 결과입니다.

태초 이래로, 하나님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우리 모두와 강력하고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서 하느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의 죄는 우리와 하느님 사이에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된 채로
지내도록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위한 하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분 계획의 목표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 존재했던 인류와의 관계의 가장
친밀한 측면조차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생긴
장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수 있게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지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17**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바치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셨습니다. 이 용서는 단순히 그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 모두가 얻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 지상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인류를 하나님께 완전히 복원시키시려는 하나님이 광범위한 계획의 또 다른 중요 요소를 설명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2-3**

하나님께서서는 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언젠가는 모든 믿는 자들을 “집으로” 데려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도록 하실것입니다.

“천국의 사신 (대사) - 성령”

사신 (대사)은 평화와 선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한 정부의 공식 대표로서 타국으로 파견되어 타국민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표하는 정부의 권위, 관대함 및 자원을 가지고 자신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최고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는 위엄과 완성을 더해 그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여러면에서 성령의 사명은 천국 사신 (대사)의 사명과 유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힘과 자원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사명으로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의
마감이 다가오고 있을때, 예수님은 떠나신
후에도 그들을 홀로 남겨두지 않으실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인도하기
위해 보내질 사람이 있다고 그들에게
말하셨습니다 - 성령.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7 (개역한글-KRV)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할일을 다하신 후에
그는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인도와 지도력, 위로와
조언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설명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26 (개역한글-KRV)**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의 형태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우리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개인적입니다”

창조 초기부터 성령께서 모든 세대를 걸쳐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동하시니라” **창세기 1:2 (개역한글-
KRV)**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사역의
완수로 성령의 사역은 모든 신자에게
개인적이고 친밀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만, 그들 안에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17-18**
(개역한글-KRV)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위로를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계신 성령의 임재로 영적으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다음의 네가지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안의 성령을 사용하십니다:

1.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개인적 현실로 만듭니다.

2.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3.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장을 돕기 위한 기독교인으로서의 특징을 만드십니다.

4.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원을 개인적 현실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바치신 분은
예수님이셨지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구원은 그것을 얻게 되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태어날때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명백히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창조할 수 있는 영적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5-6**
(개역한글-KRV)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들은 내면에서 영적 부활을 가져와
그들의 삶으로부터 죄의 면류관을 완전히
제거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26 (개역한글-KRV)

오늘날 성령께서는 예수님, 인격화 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세상의
신자들과 비신자들 모두를 대표하는 모든

것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훌륭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작업에 적합한 도구가 없으면 가장 간단한 일조차도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를 제거하는 것은 전동 스크루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쉽지만, 이것이 없으면 훨씬 더 귀찮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우리에게 인생에서 올바른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큰 결정에 직면하는 지혜, 나쁜 습관을 버리려는 의지, 또는 확신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는 믿음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갖추도록 신실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30-31 (개역한글-KRV)**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면 우리가 직면하는 것에 대한 무한한 도구 상자에 접근 할 수 있게됩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권한을 받으면, 승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의 성장을 돕기위해 성품을 만드십니다”

선량한 성품은 우리가 구원으로부터 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우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세우도록 돕는 것은 하나님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성품을 세우고 발전시킴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 지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22-23 (개역한글-KRV)

도전 가운데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힘으로 역경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인 성품을 손상시키거나 때로는 “지름길 선택”을 하게하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부르면 그 상황에 상관없이 성실하고 진실하며 정직한 길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성공의 계절 동안, 동일한 성서적 표준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아 도취적 자존심과 교만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발전 시키고자 하시는 기독교인의 성품과 직접적으로 충돌합니다. 실제로, 온유함은 모든 기독교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게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5**
(개역한글-KRV)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우리의
도전과 성공에 직면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선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 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우리 삶에 더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그는 신자로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개역한글-KRV)

하나님은 가장 복잡한 삶의 어려움조차도 처리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 삶의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것처럼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6 (개역한글-KRV)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개인적임 책임과 훌륭한 집사 역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책임감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서로 협력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을 다할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일을 항상 충실히 행해주시고 우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상황에서 “문”을 열고 닫는 형태로 옵니다. 다른 때에는 우리의 상황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거나, 무언가를 성취하기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26**

(개역한글-KRV)

불치병, 금융 위기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예기치 못한 상실등,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때에도 초자연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극을 승리로 이끌고 어려움을 성령을 통해 기쁨으로 이끄는 전문가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적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가능한 상황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